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본격화

명현관 군수 "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위해 유치 나서야"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3만6000명 자족도시 조성 급물살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남군 내 국제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명 군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올 6월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 유치에 정진호가 켜졌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명 군수는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학교의

도 적극 검토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3만60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올 1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해남군은 기업도시 거주 인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과 전라남도, 사업 주체 등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학교의 설립 타당성 확보와 설립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방안 등에 현실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군 재정 투자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사업들이 분개도에 올라서면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 교육계와의 형평성 문제, 설립에 따른 군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경제 효과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청산도 단풍길 터널.

청산도 '3km 단풍길 터널' 함께 걸어요

29일~12월 2일 단풍길 축제

전국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든다는 완도 청산도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단풍 축제가 열린다. 완도군에 따르면 청산도 단풍길은 슬로길 9코스로 상수원 입구에서부터 지리 청송 해변까지 약 3.2km 구간이다.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각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걸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청산도 사진 동호회인 '포토 팩토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고 인화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날씨가 좋아 별이 잘 보이는 저녁에는 은하수 출사 프로그램인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도 진행된다. 예약은 카카오톡 채널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인생샷'을 통해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 단풍길 축제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사로 청산도 푸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멋진 경관과 늦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도로열선 깔고 소형제설기 구입...목포시 제설 대비 이상무!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주요 경사로 등 모래주머니 배치



목포시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도로제설단을 발대하는 등 본격적인 제설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목포시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본격적인 제설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목포시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제설차량(6대), 소형제설기(10대), 자동염수분사장치(2개소), 도로열선(1개소) 등 제설장비를 갖추고 주요 간선도로, 경사로, 이면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제설할 방침이다. 좀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제설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로열선을 옥암지하차도(진출경사로 400m)에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소형제설기(샅포기) 5대를 추가 구입했다. 이와 함께 도로제설을 위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확보와 주요 경사로, 이면도로 등에 모래주머니(적사함)를 비치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공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으뜸 마을 만들기' 3년 연속 최우수상

소가용·구목·마삭 등 5개 마을

완도군이 '2024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 수상이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을 통해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취지의 풀뿌리 주민 자치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소가용마을, 노화읍 구목·마삭마을, 신지면 동고마을, 약산면 관중마을 등 5개 마을이 으뜸마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가용마을은 휴거지를 공동 텃밭으로 조성하고 수확한 작물 판매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노화 구목마을은 어두운 연못가에 태양광 조명

을 설치하고 경관·환경 정비를 통해 아간 산책로를 조성했다. 인구 18명이 거주하는 노화 마삭마을은 '섬 속의 섬'이라는 주제로 경관 개선을 위한 꽃밭을 조성했으며 '마삭도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지 동고마을은 3년간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벽화 거리를 조성했으며 약산 관중마을은 특산물인 고추와 흑염소 이미지를 활용한 특색있는 우편함을 제작해 마을 홍보·경관 개선 효과를 봤다. 권종실 완도군 행정지원과장은 "이웃 간 소통, 공동체 정신 함양, 내 마을을 가꾸는 과정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정한 의미"라며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과제를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장세일(가운데) 영광군수가 군 감사팀장이 임회한 가운데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행사 전산 추첨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1만2964명 추첨 230명 당첨

영광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광군은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포함해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1만

2964명을 대상으로 추첨해 230명이 당첨됐다. 장세일 군수가 직접 추첨했으며, 군 감사팀장이 임회한 가운데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영광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나도 이젠 작가여라"...진도 섬마을 어르신들 이색 전시회

이동복지사업 비대면 프로그램 조도면 14개 마을 109명 참여

"나도 이젠 작가여라!" 진도의 한 섬마을 대합실에서 어르신들이 작가로 참여한 이색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진도군노인복지관은 최근 조도면 창유항 대합실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섬 작품전시회 '희망으로 꽃피다'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노인복지관의 이동복지사업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도면 14개 마을 10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이 지난 1년간 수업을 통해 만든 부채와 화분, 벽걸이 그림 등의 작품은 물론 활동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이 전시됐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섬마을이다 보니 적게는 70대에서부터 90대까지 작품을 참여했다. 92세인 창리마을 장국단 어르신은 최고령 참가자로 "나도 이젠 작가여라!"는 작품에 얼굴을 실었다. 복지관의 비대면 프로그램은 접근성의 한계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섬 작품 전시회에 참가한 창리마을 장국단 어르신. <진도군노인복지관 제공>

어르신들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복지관과 마을 경로당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전문가가 섬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복지관은 올해 조도 본섬에 이어 가사도 등에서 추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장예순 진도군노인복지관장은 "조도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작품과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길 바란다"면서 "섬 거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농수특산품 판매 '신안1004몰' 연말 기획전...30% 할인

신규 회원가입 고객 1000원 적립 12월 2~12일...무료 배송 쿠폰도

신안군이 농수특산품 판매 쇼핑몰인 '신안1004몰'에서 12월 2~12일 연말 고객 감사 기획전을 개최한다. <배너 광고> 이번 행사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 1인당 30% 할인쿠폰 3매씩을 지급하며 최대 9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배송 쿠폰도 3매씩 제공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규 회원가입 고객은 1000원이 적립되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에도 1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신안1004몰은 신안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김, 천일엽, 홍어, 유기농 쌀, 새우, 낙지, 새우젓, 시금치, 대파 등 신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39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3만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1004몰 회원들의 꾸준한 관심에 보답하고자 고객 감사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다양한 품목과 혜택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연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